

#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6월 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 김 수 은 -

저는 교회학교에 다닐 때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 내가 위험과 곤경에 처하면 그런 나를 구해주실 분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지를 내가 알 수 없으며, 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의 믿음이 자라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나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좇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요구와 필요만 많았습니다. 점차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 성경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은혜와진리소식’지를 주시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전도하셨고 저 또한 은혜와진리교회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자주 예배에 빠지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도 하였지만 구역장님들은 언제나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고 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상황과 시간을 배려하여 구역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오가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장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과 또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처럼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성령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과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두려움 이상의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받은 충격은 저보다 더했습니다. 그 때 저희의 심정은 우리 부부만 세상에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에 성심성의껏 저를 챙겨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수구역장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구역의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홀로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저의 심령에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파도처럼 요동치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두려워 낙심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며 치료의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성도님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도 내주하셔서 전하시고 의로우신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병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관념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나를 목적하시는 바대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령한 위로와 평안이 저의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갱년기를 겪는 중년으로 변하고 부모님은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 자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의 태도가 전과 달라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저의 연약하고 미숙한 점은 끝이 없고 성숙한 신앙을 위한 연단과 결단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6.25때 고아가 되시고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보내신 친정아버지가 노년에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잘 보살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아버지는 물론 돌보는 우리 가족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과 더없이 예민해지고 위축된 어머니의 모습, 하루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슴 졸이는 가족들, 모두가 긴장하고 내일이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머니가 감당하고 계신 그 수고의 백분의 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새 힘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 정성껏 아버지를 돌보아드리고 믿음과 소망의 말로 어머니를 위로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누그러지시고 가족이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잘 못하셔도 가끔 눈으로 사랑한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져 부정적이거나 혹은 우월감으로 교만하기 일췌였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섬기게 된 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하박국 3:17,18)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인생의 회로애락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겠지만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복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위해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역자님들,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로 인해 저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 아직도 갈등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저의 소망이 것처럼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예수님께 있기에 저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2권 (제11단원 : 교회)

(제51과) 교회의 영광된 미래

- 본문 : 요한계시록 19:6-10

• 요절 :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계 22:5)

• 찬송 : 246장(새찬송가 208장), 248장(새찬송가 550장)

현대의 과학 문명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희망찬 청사진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공해, 핵무기, 인구 문제, 기근, 민족 분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인간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 낙원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지않아 첨단 의학은 인간을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진단해 보면 인류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파멸을 향하여 다가서고 있으며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교회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혼한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후 11:2)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교회와 더불어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일컬어 ‘어린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하였습니다(계 19:9). 교회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더불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열 두 보석과 정금과 진주문으로 이루어진 크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은 교회의 영광된 미래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영광된 교회에 동참하기 위하여 늘 깨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교회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2)고 하였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예식을 마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계 20:6)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차 성도들은 천사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고전 6:3).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계 22: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던 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의와 진실로 통치하므로 그 나라는 정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딤후 2:12)는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의 인내로써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3. 교회의 미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이라는 말로써 문안 인사를 끝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신분이 나라요,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라 함은 장차 교회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말쑤한 것이며, ‘제사장’이라 함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고 하였는데, 이는 장차 교회가 마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영원하고 영광된 것입니다. 또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된 미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확보해 놓은 빛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더욱 분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